창덕궁 - 자연에 동화된 휴머니즘 건축의 전형

- 500년조선왕조의풍운고스란히담아,‘ 절반의평가 로 세계문화유산에선정 -

계춘(季春)의 궁궐. 빈 집 빈뜰을 가득 채운 따사로운 햇살이 오히려 적막하다. 인정전(仁政殿) 지나 희정당(熙政堂) 뒤 대조전(大造殿). 그 무량각 지붕 너머로 파릇파릇새순을토해내는수목들이호흡하는 봄기운을 타고 ‘ 창덕궁(昌德宮) 전하 ’순종의간절한유언이맴돌아흐른다. “ 나는 종사의 죄인이며 2,000만 생민의 죄인이되었으니, 한목숨꺼지지않는한 잊을수없다. 노력하고광복하라…. 광복하라. ”

어느 여름날, 갑작스런 소낙비를 피해 낙선재(樂善齋) 행랑처마 아래 마루턱에 걸터앉았다. 환청이던가. 벽력같은 뇌성 사이사이로 어느 여인의 당찬 호통 소리 가섞여 들렸다. 6 · 25 한국전쟁당시이곳 창덕궁으로 밀어닥친 인민군에게 “ 이곳은나라의어머니가 사는집 ”이라며끝내자존심을흐트러뜨리지않았다는순정효황후 윤씨. 조선왕조 마지막 며느리였던 그녀는 이승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창덕궁을 지키다가 낙선재에서 숨을거두었다.

비운의이미지는어떤그림으로표현될까. 몰락한왕조에미련을품은심사가아닐진대 순종과 순정효황후, 영친왕과 그의비이방자여사, 그리고덕혜옹주의삶이왜슬픈운명으로회자되는것인가. 아는만큼보이고보이는 만큼느낀다고 한다. 이들의삶을관통해온안타까움은곧 순리에 어긋난 강제된 역사에 대한 사무치는회한이다.

조선 제2궁궐로 창건

창덕궁은 조선왕실의 이궁(離宮)으로 창건되었다. 그배경에는 개국 초기의 골

육상쟁, 즉제1, 2차왕자의난이숨어있다. 태조 7년 8월, 군사를 일으켜 경복궁(景福宮)을공격한다섯째왕자방원은이복동생인 세자 방석 형제를 살해하였다. 더불어 세자를 감싸던 개국 공신 정도전과 남은 일파도 제거하면서 일거에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식들의 흉변에 분노한 태조는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였다. 정종은곧옛도읍개성으로천도했으며, 그 재위2년에는방간 · 방원친형제간에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방간이동생 방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제2차 왕자의 난이다. 이때 방간을 제압한 방원이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으니이가조선제3대국왕태종이다.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된 태종 재위 4년, 조정에서는 한성으로의 환도 논의가 시작되었다. 태상왕 이성계의 한성에 대한애착이큰작용을하였다. 태종은한성 환도를 명하면서 자신이 입거시조(入居視朝)할궁궐을새로짓도록하였다. 성석린 · 조준 등 중신들이 경복궁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태종은 응봉 자락 향교동을 이궁 터로 확정하였다. 왕권을 더욱강화하고싶었던 속내가 짐작된다. 그해10월에시작한 이궁 영건 공사는 이듬해인 1405년 10월에 완공되었다. 태종은새궁궐이완공되기열흘남짓 앞서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경복궁으로들지않았다. 연화방조준의집에거처하면서 이궁의 완성을 기다렸던 것이다. 경복궁이 자신의 손으로 동생들을 죽여야했던바로그 현장이었기때문은아니었을까. 마침내10월스무날태종이새궁궐에 입어하니 온 도성이 경축의 염원으로충만하였다. 그리고새궁궐은 창덕궁으로 명명되었다. 올해로부터 604년 전의일이다.

이렇듯 이궁 즉, 제2궁궐로 창건된 창덕궁은그러나정궁인경복궁이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고종 때 중건되기까지 273년 동안 조선왕조의 실질적인 정궁이었다. 창덕궁에서는 연산군 · 효종 · 현종 · 숙종 · 영조 · 순조 · 철종 · 고종 등 여덟분의임금이즉위하였다.

임란 이후 정궁…풍운의 역사를 담다

경복궁의동쪽방향에입지함으로써동궐(東闕)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창덕궁은 창건 당시 외전 74칸, 내전 118칸의 작은 규모에 불과하였다. 『太宗實錄(태종실록)』에 기록된 주요 전각은 정침청 · 동서침전 · 서별실 · 동루 · 상고 · 수라간 · 사옹방 · 탕자세수간 · 편전 · 보평청 · 정전 · 승정원청 등이다. 창덕궁에 주로 거처했던태종은지속적으로전각을건립해나아갔다. 1406년에는 인소전과 광연루를, 1411년에는 해온정과 금천교를, 그리고 1412년에 이르러서야 창덕궁의 정문 돈화문(敦化門)을세웠다. 이후세종과단종, 세조를 거치면서 창덕궁은 조선왕조 제2궁궐의면모를갖추었으며, 성종은대제학 서거정에게 명하여 29 궐문의 이름을짓게하여각각그문액을걸었다.

치욕의 16세기말, 창덕궁 역시 임진왜란의 전화를 비켜갈 수 없었다. 경복궁 ·

(좌)인정전. 창덕궁의 정전이다. 사진 속 오른쪽은 유일하게남아있는청기와전각선정전이다, (우)인정전의용상.

창경궁과마찬가지로전소되고말았던것이다. 그러나, 전후복구공사에서는창덕궁이 가장 앞서 중건되었다. 의주로몽진했던선조는1년이지나환도했으나 모든 궁궐이파괴됨으로써지금의경운궁(慶運宮) 자리에있던월산대군의옛저택을시어소로 삼아 승하할 때까지 그곳에 거처하였다.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서 궁궐을 새로짓지못했던것이다. 이윽고선조재위 말년인 1607년에 이르러서야 창덕궁 중건 공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인정전 등 주요 전각들이 건립되었으나, 두 차례의 공역 중단을 거쳐 1610년에 완공을 보았다. 정릉동행궁즉, 월산대군의옛저택에머물러 있던 광해군은 창덕궁으로의 이어를 꺼리다가 1611년에야 창덕궁으로 입거하였다. 이로부터 창덕궁의 정궁 역할이 시작되었다.

조선전기의 이궁, 조선 후기의정궁이었던 창덕궁에는 구석구석 연산군 · 광해군의 패륜과 인조반정, 임오군란, 갑신정변, 조선왕조 마지막 어전회의 등 풍운의 역사가스며있다. 20세기들어일제강점기에는 경복궁 · 창경궁과 더불어 창덕궁도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인정전 · 희정당 · 주합루 등이 일제 관리들의 향응 장소로 전락했는가 하면 궐내 전각의 태반이훼멸되고말았던것이다. 그리고1926년 4월 마지막 임금 순종이 대조전에서 승하하면서 그나마 창덕궁은 주인 잃은 쓸쓸한' 고궁 으로남게되었다.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전각 배치

창덕궁의전각배치는경복궁과판이하다. 즉, 경북궁의 경우 옛 중국의 제도에 따라 정문과 중문 · 전문 · 정전 · 편전 · 침전이 남북 직선 축상에 질서를지켜 반듯하게 입지한 반면, 창덕궁의 전각들은 지형지세에 순응하여 자유롭게 배치되었다. 정문인 돈화문은 정전인 인정전의 남서 방향에 멀찍이 건립되었고, 유일한청기와 집이자 편전인 선정전은 인정전에 잇닿아 동쪽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동쪽으로정침인희정당을배치했으며 그뒤에중전인대조전을건립하였다.

자연 친화적 건물 배치의 압권은 후원(後苑)이다. 울창한숲속에그야말로최소한의터만닦아대자연의 장식물같은 정자들을 세웠다. 물길 따라 연못을 만들고 비탈따라돌담을 쌓았으니그 풍경 하나하나가 혹은 이리저리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이다.

후원초입의부용정. 이미대자연의일부이다.

창덕궁의정문, 돈화문의처마구성.

바야흐로친환경건축이화두로떠오르는 시대이다. 친환경 건축의 궁극적 지향점은 자연 존중이요 인간 존중이다. 우리 전통 건축의 재료는 자연 그대로이다. 흙과돌과나무와풀에최소한의 가공을 했을뿐이다. 돌을깎아주추를놓고구들을 얹는다. 흙을구워기와를올린다. 나무를 다듬으면 기둥이요 마루이며 창호이다. 그 속에 주인으로서 친구로서 사람이 머문다. 자연에 동화되면서도 자연을 어루만지는너른지혜야말로휴머니즘건축의 전범(典範)이다. 이러한전통건축의정수가곧서울도심속창덕궁인것이다.

창덕궁은 이렇듯 자유로운 전각 배치의틀을 지켜오면서임진왜란및크고작은 화재를 겪으면서 부분적으로 그 배치가변하기도하였다. 그자세한변천과정은 알 수 없지만, 19세기 순조 시대 이후의전각배치는『東闕圖(동궐도)』와『東闕圖形(동궐도형)』및『宮闕志(궁궐지)』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997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한 창덕궁의 면적은 후원을 포함하여 13만 5,000여 평이다.

이덕수
본지편집장